

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국토교통부 | | 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| |
|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| | 배포일시 | 2018.8.5(일) / 총2매(본문2) |
| 국토부 | 자동차정책과 | 담당자 | •과장 박대순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황우관 •☎ (044) 201-3843, 3844 |
| 교통안전공단 | 자동차안전연구원 | 담당자 | •처장 최광호, 책임연구원 박기욱 •☎ (031) 369-0251, 0284 |
| 보 도 일 시 |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

“18개월전 BMW 결함 알고도 뒷짐” 사실과 달라

- ① 미국 등에 BMW 차량 수만대 리콜 기사내용에 대하여,
 - ‘17년 미국에서 발생한 BMW 리콜차량은 528i 등 가솔린 차량이며, 이번에 문제가 된 BMW 520d 등은 전혀 다른 디젤차량이고, 화재발생 원인도 다름
- ② 국토부, 최소 18개월 전 사고위험인지 기사내용에 대하여,
 -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센터에 신고된 8건중(1건은 중복신고), 2건(‘15.11, ‘17.2)은 수리가 완료된 후 1개월 경과된 시점에 신고되어 실차확인이 불가하였고, 나머지 5건은 신고당시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었음(자동차안전연구원)

(참고) 자동차 리콜센터 신고내역(기사내용 요약) 및 확인결과

| 신고시기 | 신고내역 | 자동차안전연구원 확인결과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‘15.8월 | 냉각수 부족 경고등 점등 | 화재와 직접적 연관 없음 |
| ‘15.10월 | 80km/h 이상 가속 어려움(중복) | |
| ‘15.11월 | 신호대기 중 까만 연기 발생 | 화재와 관련성이 의심되었으나, 수리완료 후 신고 접수되어 추가조사 불가 |
| ‘17.2월 | 가속페달 미작동, 보닛 연기 | |
| ‘17.6월 | 흡기다기관 파손 | 화재와 직접적 연관 없음 |
| ‘18.4월 | 엔진경고등 점등 및 출력저하 | |
| ‘18.6월 | 엔진경고등 점등 및 엔진소음 | |

○ 한편,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18년 BMW 차량 화재사고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왔으며, 5월 이전까지는 화재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, 차량전소 등으로 원인확인이 어려웠으며, 6월에 들어 특이사항을 포착 후 예비검토에 착수하였음

- '18년 BMW 화재사고 중 BMW가 1월부터 4월까지 제출한 총 12*건의 보고사항은 차량전소로 화재발생 원인 확인이 곤란하였고

* 1월 5건, 2월 1건, 3월 2건, 4월 4건

- 5월 발생한 5건(4건, 차량전소로 화재원인 불명)중 1건이 부분소실되어 확인결과 흡기다기관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추정되어, 예비검토에 착수한 후 제작자에 관련자료를 요청(6.25, 제작자는 7.5 독일본사와 원인규명 중으로 회신)

* 7.16 제작결함조사 지시, 7.26 리콜 발표

□ 참고로,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월 100만 건이나 되는 결함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,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각 자료별로 사고발생 빈도 또는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하고 있음

* (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자료 : 월 약 100만건) 제작자, 차종, 부품 빈도분석을 통해 높은 빈도의 경우 추가 사유분석 및 결함 의심시 조사 착수

* (기술정보자료: 월 약 500건) 세부내용 확인 후 리콜 사안으로 판단시 조사 착수

* (화재 및 사고관련 기술자료: 월 약 150건) 세부내용 확인후 결함에 의한 화재 및 사고 의심시 조사에 착수

* (기타: 소비자 불만신고접수, 해외 리콜사례, 자동차 검사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한 수집·분석) 소비자 불만신고로 접수된 경우 소비자 상담, 빈도분석, 차량 확인 등을 통해 결함 가능성을 분석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경제, 8.5) >

◆ 18개월전 BMW결함알고도 뒷집.....정부늑장대응이 사태키워

- 국토교통부, 최소 1년6개월 전부터 EGR 결함으로 인한 BMW 사고위험 인지
- 지난해 미국 등에 BMW 차량 수만대가 리콜이 되고 있는 상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자동차정책과 유연형(☎ 044-201-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